

홍보동영상 제작에 붙여

글 김강희(본부 홍보과)



어릴 적 연말이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보내던 편지, 연하장에 정성을 더하고자 예쁜 크리스마스 썸을 붙였던 기억이 있다. 편지 내용 이상의 결핵 퇴치,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소중한 의미를 담는다는 의미에서 썸을 붙인 편지나 연하장을 우체통에 넣으며 뿌듯해했던 어릴 적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느끼는 크리스마스 썸의 가치는 예전만 못한 것 같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썸을 단순한 스티커 정도로, 학부모님들은 연말에 부과되는 귀찮은 세금 같은 것으로 여기고 썸 판매시존이 되면 곳곳에서 썸 판매의 당위성 및 그 효용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다.

하지만 매년 3,000여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매년 35,000명 이상의 결핵 신환자가 발생하며 인구의 1/3이상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결핵취약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썸을 통한 모금액은 여전히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있어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 양극화로 인해 극빈층의 결핵발병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크리스마스 썸의 중요성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제작개시와 함께 우리는 이번 홍보동영상의 관람대상을 크리스마스 썸의 주요 구매층인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로 보고 그들의 취향과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내용구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 결과 결핵의 심각성,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당위성 등, 약간은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2006년 본회 홍보대사(박준형, 정종철, 오지현)를 출연시켰으며, 또한 인기 프로그램인 VJ특공대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크리스마스 썰을 직접 구입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부터, 수십 년간 썰을 수집하며 그 소중한 의미를 널리 전해온 교수님, 현재 결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대학생까지 홍보동영상의 좋은 취지를 이해하고 촬영을 적극 도와주었다.

특히 결핵의 심각성 및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주신 출연자분들께는 어떤 말로도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제작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바쁜 시간 쪼개어 출연, 번뜩이는 재치와 놀라운 순발력을 보여준 박준형, 정종철, 오지현 홍보대사,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숨기고 싶었을 법한 결핵투병 사실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해준 김창렬 님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정신없이 진행되었던 홍보동영상 제작과정,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던 시간이었다. 얼마 전 제작 완료된 동영상 DVD는 2006년 크리스마스 썰 판매를 앞두고 전국 1만여 초, 중, 고등학교에 배포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참여로 결실을 맺은 이번 홍보동영상을 관람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의도했던 나눔, 이웃사랑의 실천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 올해 크리스마스 썰 캠페인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